신행수기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 〈하〉

임풍금 (광주시 광산구)

구급차 안에서 나는 또 기도를 드렸다. 내 마음 속에 항상 계신 부처님, 어머님이 가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부처님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머님보다 젊고 힘이 있는 저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는 죽기살기로 부처님께 온갖 기도를 다 바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나의 처지가 불쌍하고 가련했던지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광명의 빛을 한번 더 주셨다.

어머님의 기적같은 쾌유. 그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철저히 나의 것으로 보듬는 나의 생활습관, 이런 것의 대가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또 한번 살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32년 전 대구 제 2군 사령부 현역 근무시절에 팔공산 갓바위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약사여래불) 참배를 금년 가을에서야 다녀옴으로써 삼십년 전의 자그마한 소원 하나를 최근 이루었다. 이 고장 불자들은 쉽게도 다녀오련만 나에게 팔공산 갓바위 참배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법을 알고자 하는 나, 아는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나, 이런 나를 만들고자 원을 세웠던 내가 팔공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했다. 슬프디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 하마터면 나는 소리내어 울 뻔 했다. 한량없는 자비로움과 광명이 가득 넘치는 웃음 띤 얼굴의 부처님만을 상상했던 내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계신 저 얼굴!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뒷날 큰아들 녀석에게 슬픈 얼굴의 부처님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 "어머니, 이 세상 불행한 불자들의 고통을 다 거두어 짊어지신 까닭이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바라던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갖가지 소원을 빌고자 십만 인파가 운집했다는 보도는 나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

이제 그 고통의 얼굴을 접어두시옵소서. 나는 내 육신이 다할 때까지 기도 속에서 살 것이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든든한 부처님의 뒷심만을 믿고 기도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후원자가 또 있을까? 내가 불법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닥쳤던 고통과 수많은 참담함과 쓰디쓴 인생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큰스님들 법회에 자주 참석한다. 법회때마다 접하게 되는 수많은 법문들은 나를 매혹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내 삶 또한 매력 넘치는 그런 법문들처럼 생동하는 것이고 싶다.

내가 다니고 있는 절의 스님께서 어느날 "총무보살님은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소?"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아무것으로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다른 보살님들은 하나같이 꽃으로, 나비로, 남자로,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만 나의 대답은 왜 그랬을까? 부질없는 세상사에 미련은 없었다.

내 과거가 슬픈들 어떠하며 미래가 기쁜들 흔들릴까? 오직 주어진 귀한 내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다시 팔공산 약사여래불을 참배할 때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부질없는 집착들을 죄다 소멸시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은 보지 않을 것이다.

지나쳐도 넘쳐도 좋을 것은 기도요, 효도일 것 같다. 부처님은 분명코 이 세상에 펼칠 만한 가치의 메시지만을 전하셨던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셨던가.

불법을 조금이나마 아는 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존재다. 문득 달라이라마의 한 기도문이 생각났다.

"우주가 다 할 때까지 중생이 남아 있는 한 나는 세상의 불행을 없애는 자로서 남을 것이다."

내 자신 이런 원을 세우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내 생애 가장 불행했을 때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고 양심과 약속한 그 기도만은 꼭 지키리라. 앞으로 어떠한 괴로움이 닥쳐도 참다운 불법에 기대는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이다. 주어진 나의 일을 함에 있어 끝을 보이지도 않고 내세우지 않는 이타행을 실천해 보일 것이다.

저 멀리 팔공산의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을 염송해 본다. 아아 너무나도 감사한 내 삶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끝)

그림 · 김홍인

부처님이 슬퍼 보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리라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종관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장

안거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정진 '금강경' 독송과 참선으로 하루 마감

이뭣고~

독경, 간경, 사경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 인간의 한 생명은 한 호흡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는 참선에 관심을 두게 됐다.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던 2000년에 장모님, 큰처형, 아내와 함께 24시간 365일 화두참선도량인 조계종 수선회에서 현담 스님으로부터 참선교육을 받고 지금껏 안거때마다 4명이 함께 방부를 들여 정진하고 있다. 사람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했는데 가족이 함께 선방에서 정진한다는 게 얼마나 신심나는 일이겠는가.

하안거 때 생애 처음으로 방부를 들여 지리산 서암정사에서 3박 4일간 용맹정진할 때 철야정진중 선방 바닥에 머리를 굉하고 박던 때를 생각하면 용맹정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본다.

월드컵이 한참이던 지난 2002년에는 송담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용화선원 화두불명십선계 법회에서 법명을 받았다. 내가 받은 법명은 송주(松州).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법신을 이땅에 회향하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조계사청년회에서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법명을 받았다. 송담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내게는 더욱 소중하다. 뿐만 아니라, '이뭣고' 화두까지 받았으니 본격적인 참선수행을 시작한 것인데, 참선 수행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청년회원으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하면서 외부활동이 잦다 보니, 비록 장모님이나 아내처럼 용맹정진하진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회향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영가발원문을 외우고 5분씩 참선하며 조금이나마 꾸준히 참선하는 습관을 들여가고 있다. 그리고 사찰참배를 갈 때마다 그 사찰의 주전각에서 삼배 후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20~30분 정도씩 참선을 한다.

수선회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에 대해 알게 됐다. 그중에서도 제주도 남국선원장으로 계시는 혜국 스님은 2002년 가을에 봉인사 자광전 개원3주년 기념법회 때 처음 만났다. 산본의 법해사에서 자동차로 봉인사까지 모시는 인연을 맺었는데 오른손 손가락 3마디를 연비하신 모습을 직접 친견하고는 실로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얼마 전에 구입한 혜국 스님의 <인연법과 마음공부>라는 책은 문고판이지만 선방에서 직접 수좌들과 함께 실참실수하며 선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은사인 일타스님과의 일화,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어 참 수행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초발심때 '불교를 믿고 신행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짐을 믿으라' 하셨던 무진장 스님의 법문은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신행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니 무진장 스님께 감사드린다.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참선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신 현담 스님께도 감사드린다. 내가 신행생활에서 사경이나 참선수행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리라 발원한 것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바에 나투신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애 6년, 결혼 5년 동안 늘 나와 함께 하며 조계사청년회 연수원장을 맡게 되어 다소 가정생활에 소홀할 수 있음에도 자신도 주말에 불교대학에 다니니 피장파장이라며 격려해 주는 도반이자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부처님법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수행정진하고 세세생생 불법구족을 발원하며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나에겐 큰 행운이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⑤

문장 주어 · 서술어가 기본…관형어 등 추가

●문장의 요건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과정은 대체로 주제의 설정과 소재의 선정이 끝나면 구성을 한 뒤 바로 집필로 들어가게 된다.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장과 문체, 문단 나누기, 묘사와 서사 등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 부속 성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형어나 부사어가 붙는다.

관형어는 '어찌하는' '어떤' '무엇 무엇의' 같은 말로 다른 단어를 수식한다. 부사어는 '어찌' '어떻게' '어찌하게' '…등으로'와 같은 말로 다른 단어를 수식한다. 수식어는 ①심상(이미지)을 선명하게 할 때나 ②의미를 분명하게 할 때 사용하면 좋다.

●정확한 문장 쓰기

정확한 문장이란 문법에 맞는 문장을 가리킨다. 문법에 어긋나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뜻이 명확하도록 문장을 써야 한다. 문법에 맞는다고 해서 언제나 뜻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시)

그분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극진했다(X).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극진했다(O).

글쓰기가 쉬운 것 같아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쓰기란 쉽지 않다. 소리 내어 몇 번씩 읽어 보고 부단한 퇴고를 거쳐 어법(語法)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문장을 쓰도록 해야 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기도처 지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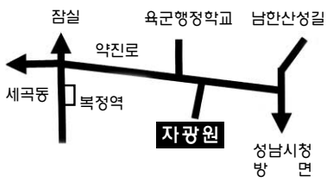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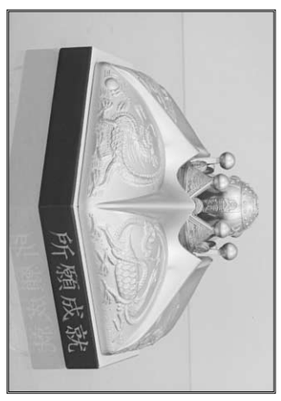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아토피 · 비염 · 천식

완치 성공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인형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 지정한의원 마고

진 료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마고한의원

문 의 02)587-0001

※ 아토피 · 비염 ·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